

민주 175·국힘 108·조국 12석 확정

▶▶ 총선 전북 당선인들의 소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미래·진보, 지역구서 1석 개혁신당, 지역 1·비례 2석 녹색정의당은 원외로 밀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가 11일 오전 10시30분께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비례 의석은 14석을 얻었다. 12석의 조국혁신당과 3석의 개혁신당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9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개천 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108석을 확보하며 참패를 당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개표 결과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전체 지역구 의석수 254석 중 48%인 122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102석을 가져가며 승기를 잡았다.

48석이 걸려있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7석을 가져갔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마포갑·을, 용산,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동작갑·을, 영등포갑·을 등 '한강벨트' 11개 지역구에서 8석을 쟁했다. 초합전을 펼친 용산구, 동작을, 마포갑은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경기도(60석)



선거 벽보 철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원산소방서 앞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를 선거구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에서도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53개 지역에서 승리하며 지난 21대 총선(51곳) 기록을 깼다.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수원·광택·용인·이천·화성)는 17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15석을 얻었다. 나머지 2곳인 화성을 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천은 송석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 남부 반도체 기업 본사들이 자리잡은 지역을 일컫는 반도체 벨트엔, 의석이 지난 총선 때보다 2개 더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2석 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참패했다.

민주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 벨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쟁했다. 21대(20석)에 이어 2회 연속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다.

첫발인 호남(광주·전남·전북) 28석을 모두 지켜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했다. 첫발인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40석이 걸린 부산·울산·경남(PK)에서 민주당 후보의 추격전을 때물리며 34석을 확보했다. 46석의 비례 의석도 확정됐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 주도 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이다.

이에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민주당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08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후보를 안 낸 조국당은 비례로만 12석을 확보 '원내 제3당'이 됐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을 포함해 3석을 안았다.

정의당은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던 심상정 의원이 3위에 그치며 낙선하고, 정당지지율이 2.14%로 3% 미만을 밀려들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뉴스1

“균형잡힌 국가 만들기 최선”

전주갑 - 민주 김윤덕 당선인

민주당과 김윤덕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전북도민 여러분과 전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김윤덕은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잘 사는 전북,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족정을 막아내는 일이 우선입니다.

반칙이 없고 정의로운 나라, 모두를 포용하는 나라, 온 나라가 팔고루 잘 사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중진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된다면 전북을 위하고, 전주를 위하는 일이려면 어떤 일든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은 전북도민과 함께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전주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킬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공지 드높이라는 염원 받들겠다”

전주을 - 민주 이성운 당선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성운입니다.

먼저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 밀어줬으니 중앙에서 윤석열을 확실히 심판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오직 실력으로 전주의 미래를 열고, 전북의 공지를 드높이라는 그 염원,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정신이자 정의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과 '윤석열·한동훈 특검'을 추진하고 관철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지역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전북 뒷'을 제대로 되찾겠습니다.

“尹 정권 종식시키는 선두에 설 것”

전주병 - 민주 정동영 당선인

시민여러분께서 정동영을 다시 불러주셨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제가 빛나서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저를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어찌 다 갚을지 막막해 집니다.

정동영은 오늘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의 기쁨보다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무를 더 무겁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는 선두에 설 것이며, 주름진 민생경제를 되살리는데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늘 품어 왔던 정치 개혁의 꿈도 이뤄내기 위해 동료·후배 정치인들과



과 토론하고 마음을 합치겠습니다. 전주는 정동영에게 어머니의 품 같은 곳입니다. 효심을 다하듯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낮은 자세로 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 삶 보살피는 것을 첫 책무로”

익산갑 - 민주 이춘석 당선인

반갑습니다. 이춘석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오히려 익산 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예비후보 선거 운동부터 오늘까지 120여일 동안 시민들께 인사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시민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 먹고살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우리 익산이 인구가 너무 줄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염려였습니다.

시민들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는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으로서는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야 하는 것이 첫 책무로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에 맞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켜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잡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철도 교통 도시 익산의 장점을 살려 제2역 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5개 이상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사와 시장을 만나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약 사항에 대하여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익산시가 한층 더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총선 당선인 10명 국회 상임위 행보 관심사

법사위에 민주 이춘석·이성운 등 거론

그동안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일부 상임위 출립 현상을 보여왔다. 익산을 한병도 당선인은 “21대에서 상임위 논의를 할때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봉해수위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전북지역 선거구에 당선된 당선인들이 연인 횡수는 물론 전문성 등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 상임위의 메이저로 불리는 기재위와 법사위

소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법사위의 경우 4선 이춘석 당선인과 '반은 검사'로 이름을 알린 전 서울고검장 출신 이성운 당선인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3선이자 변호사 출신인 안호영 당선인과 초선 박희승 당선자도 조소스레 언급되고 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통상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당선인들끼리 모여 상임위를 논의한다”며 “초선의원에 우선권을 두고 그다음 재선, 3선, 4선 등 순으로 결정한다. 저는 다른 당선인들이 먼저 고른 뒤 남은 상임위 중 전북에 대응되는 곳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1

“이번 총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재선 성공 민주 윤준병 의원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고창군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준병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로 주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 모든 영광을 국민과 주민 여러분들께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윤준병 의원은 86.86%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윤준병 의원은 “협정에서 자신의 선거처럼 최선을 다해주시는 도·시군의 원님을 비롯해 밤낮 없이 고생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보좌진과 선대위원,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윤준병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윤 의원은 “치열한 경선을 치

렀던 유성영 예비후보, 본선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최용운 국민의힘 후보, 정후영 자유통합당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비운 뒤 땅이 더 단단히 굳듯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정읍고창의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제22대 총선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의 후안무치한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불을 되찾으라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윤 의원은 ‘국민명령 이행의 선봉장’이 될 것을 자처했다. 윤 의원은 “동학농민의 후예로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을 열어가겠다”며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정읍에 참에 뿌린 씨앗들을 제대로 싹 틔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환경보관 산사시의원,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현장 확인

군산시의회 환경보관 의원이 개야도 옆의 죽도에서 시행 중인 ‘작은 섬 공도(狹島) 방지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6억3,000만원, 시비 2억7,000만원 등 총 9억원을 투자해, 죽도 내부에 식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관정개발과 정수 및 급수시설, 접안시설 보강 등을 시행함으로써 급격한 인구감소 및 정주여건 불리요인 해 기존 유인도서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 있는 섬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효성 있는 사업방향 제시를 위해 직접 현장 확인한 환경보관 의원은 “죽도 같은 작은 섬에 주민의 정주나 관광객의 방문을 지원·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야도까지 운항 중인 차도선 여객선이 죽도까지 운항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도 방지 예산의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차도선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안전한 접안시설과 방파제 등 외곽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관중 기자

尹 “총선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 국무총리·용산 참모진 전원 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수석비서관 전원은 선거 결과가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 결과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보며 아쉬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책실장, 전 수석들은 대동

령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현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총리도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뉴스1